7. 보물을 사양하다

子罕辭寶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배라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일까? 그리고 가치의 우열을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물질을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宋人或得玉하여 獻諸子罕한대 子罕弗受라. 獻玉者曰

"以示玉人하니 玉人以爲寶也라. 故敢獻之라."



새로 배울 한자

辭 **사** 말, 사양하다 | 獻 **헌** 바치다 | *罕 **한** 드물다 | *弗 **불** 아니다 | 寶 **보** 보배
貪 **탐** 탐하다 | *爾 **이** 너

- 若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글을 의미에 맞게 읽을 수 있다.



子罕曰 "我以不貪爲寶요 爾以玉爲寶라.

若以與我면 皆喪寶也니 不若人有其寶라."

"좌전"

읽고 풀이하기



宋人或得玉，獻諸子罕，子罕弗受.
어떤 사람 ~에게 그것을=之於 =不

송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옥을 얻어 자한에게 그것을 바치니 자한이 받지 않았다.

獻玉者曰："以示玉人，玉人以爲寶也.
玉생략 ~라 여기다
故敢獻之."
그것=옥

子罕曰："我以不貪爲寶，爾以玉爲寶.
~을(를) ~라고 여기다 너, 그대

若以與我，皆喪寶也，不若人有其寶.
만약 玉 사람마다
~로써(을) 주다 ~만 못하다

*諸: ① **제** 모두 諸般(제반)
② **저** ~에 그것을

*子罕(자한): 춘추시대 송(宋)나라의 어진 신하

*或 得 玉 (주술목 구조)
주어 서술어 목적어

*玉人: 옥 감정사

*以A爲B: A(로써)를 B라고 여기다

새로 배울 한자

般 **반** 돌다, 종류

선물일까? 뇌물일까?

생각 넓히기

선물을 주는 이유 :

뇌물을 주는 이유 :

선물과 뇌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인문학 더하기

청렴한 명재상 안영

안영(晏嬰, ?~B.C. 500)은 춘추 시대 명재상으로 3대의 임금을 50년간 섬기며 제나라를 중흥하였다. 사마천은 "만약 안영이 살아 있어 그의 마부가 돼 말고삐를 잡는다면 더없는 영광이겠다."라고 평할 정도였다.

뛰어난 외교력이 돋보였던 안영의 이야기는 남귤북지(南橘北枳: 남쪽의 귤이 북쪽에서는 탱자가 된다.)라는 고사성어로도 알려져 있다.

안영은 평생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밥상에는 두 종류의 고기반찬을 올리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사는 저잣거리의 누추한 집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공은 안영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새집을 지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안영은 "전하, 이 집은 제가 살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시장이 가까이 있으니 물건을 사기에도 아주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요즘 시장에서는 끌신이 비싸고 보통 신은 쌉니다."라고 덧붙였다.

끌신이란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받은 죄수가 상처가 아프지 않게 신는 뒤축이 없는 신발이다. 즉 끌신이 비싸다는 말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법이 너무 엄격해 누명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그 말을 들은 경공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영이 한 말의 속뜻을 깨닫고 형벌을 줄이고 무고한 죄인들을 풀어 주었다. 이렇듯 안영은 임금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도 스스로 깨닫게 만들면서 임금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현명한 조언자였다.

어휘력 키우기



1 '貝'가 들어간 한자

賜 사 주다 _ 下賜 하사
負 부 지다 _ 勝負 승부
賃 임 빌리다 _ 賃貸 임대
費 비 쓰다 _ 消費 소비
販 판 팔다 _ 販促 판촉
貫 관 꿰다 _ 貫通 관통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貪 탐 탐하다 _ 貪食 탐식
貧 빈 가난하다 _ 貧困階層 빈곤계층
貢 공 바치다 _ 貢獻 공헌

若 약 같다, 만약 _ 萬若 만약
苦 고 쓰다 _ 苦痛 고통
苗 묘 모 _ 苗木 묘목

受 수 받다 _ 豫受金 예수금
授 수 주다 _ 授乳 수유

或 혹 혹 _ 或是 혹시
惑 혹 미혹하다 _ 誘惑 유혹

3 한자의 활용

寶 보 보배 _ 寶庫 보고 東醫寶鑑 동의보감
貪 탐 탐하다 _ 貪慾 탐욕 貪官汚吏 탐관오리

새로 배울 한자

賜 **사** 주다
負 **부** 지다
賃 **임** 빌리다
貸 **대** 빌리다
費 **비** 쓰다
販 **판** 팔다
促 **촉** 재촉하다
貫 **관** 꿰다
階 **계** 섬돌
層 **층** 층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宋人或得玉, ㉠獻諸子罕, 子罕弗受. 獻玉者曰: "以示玉人, 玉人以爲寶也. 故敢獻之." 子罕曰: "我以不貪爲寶, 爾以玉爲寶. 若以與我, 皆㉡喪寶也, 不若人有其寶."

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獻'의 음은 '헌'이다.
㉡ '諸'는 '之於'의 의미이다.
㉢ '諸'는 '모두'로 풀이한다.
㉣ '子罕'은 '玉人'과 동일인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要 ② 受 ③ 見 ④ 失 ⑤ 禁

3.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가장 알맞은 것은?

보물로 여기는 것	
獻玉者	玉
子罕	(㉮)

① 권력 ② 재물 ③ 명예
④ 원만한 인간관계 ⑤ 탐욕스럽지 않는 삶

貢 **공** 바치다 痛 **통** 아프다 苗 **묘** 모 豫 **예** 미리 乳 **유** 젖
誘 **유** 꾀다 惑 **혹** 미혹하다 庫 **고** 곳집 慾 **욕** 욕심 汚 **오** 더럽다